

전체주제:

시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함으로 혼돈과 불법의 상황 안에서 이기는 생명으로  
공급받는 생활을 함

메세지 1

그리스도에 대한 이방 나라들의 대적 -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성경읽기: 시 2:1-3, 6, 8; 잠 29:18 상; 엡 1:10; 3:9

I. 시편 2:1-3 은 이방 나라들과 세상 통치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 하는 것을 말한다

- A. 그리스도를 대적 하는 이방 나라들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시작 되었고 적 그리스도로 완결 될 것임—행 4:25-28; 계 13:1-8; 19:19.
- B. 이방 나라들의 배역 뒤에는 “이 어두운 세상에 통치자들”, “하늘들 안에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다—엡 6:12; 단 10:13; cf. 시 82.
- C. 시편 2:10-12 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노가 온다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이다:
  - 1. 당신이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 하셨나이다—9:4.
  - 2.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 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 하심이여—9:7-8 상.
  - 3. 신약에서 세상에 대하여 그분의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오시는 때를 ‘주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한다—행 2:20; 고전 5:5; 살전 5:2; 살후 2:2; 벧후 3:10, 12.

II. 혼돈과 거역과 불법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관한 분명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잠 29:18 상; 엡 3:9:

- A. 우리는 이상에 의해 다스림 받고 통제 되며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잠 29:18 상.
- B.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 안에서 강해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엡 1:10; 3:9; 계 4:11; 고전 15:58.
- C.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이 온 성경의 중심 노선이다; 성경의 해석은 합당한 빛 비춤 아래서 이 중심 노선에 의해 강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눅 24:27, 32, 44.
- D.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에 중심이다 -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그분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일해 넣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엡 3:16-21:
  - 1.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 생명과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갈. 1:15-16; 4:19.
  - 2.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여 그들로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그분과 일치하는 신부가 되게 하며 신성한 분배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엡 4:16; 계 19:7.
  - 3.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한 무리의 사람을 얻어서 그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여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게 하시여, 그들이 그분과 하나 되게 하고 그분으로 채워지며 점유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분과 한 실체가 되어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엡 1:3-23.
  - 4.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동역을 필요로 한다—고전 6:17; 요 15:4:
    - a. 하나님과 동역 한다는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고 한 생명의 의해 그분과 한 생활을 갖는 것이다—빌 1:19-21 상.

b.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생명이다—고후 5:14-15.

III.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에 미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며 중심과 둘레이다—골 1:15-27; 엡 1:10:

- A.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만이 놀랍고 으뜸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신 분이시기를 원하신다—마 17:5; 골 3:10-11.
- B.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시다; 하나님의 분배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관계되며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다—엡 3:17 상.
- C.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놀랍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역사해 넣어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골 1:27; 3:4, 10-11.

IV. 시편 2 편은 그분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의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선포이다— 6, 8 절:

- A. 성경의 영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골 1:15-19:
  - 1. 시편 2 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신성한 관점에 따른 것이다.
  - 2. 시편 2 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분으로 높이신다.
- B. 시편 2 편 안에서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와 실체가 거기에 있다.
- C. 시편 2 편 안에 왕과 왕국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6, 8-9 절:
  - 1. 하나님이 왕을 갖는 것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6 절
  - 2. 그리스도의 왕국은 온 땅을 덮는 모든 나라들의 큰 왕국이 될 것이다; 그분의 왕국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곳일 것이다— 8-9 절; 22:28; 단 7:14.
- D. 시편 2 편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의 단계들을 계시한다:
  - 1.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신성 안에서 영원토록 기름부음 받은 자이며— 2 절.
  - 2. 그분의 부활(그분의 죽음을 또한 의미함)— 7 절; cf. 행 13:33.
  - 3. 그분의 승천—시 2:6.
  - 4. 그분의 우주적인 왕국을 세우심으로 이방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심— 8 절; 계 11:15.
  - 5. 그분이 철장으로 이방나라들을 다스리심—시 2:9.

## 메세지 2

시편 2 편에 제시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계시를 봄

성경읽기: 시 2:4-9

### I. 시편 2:2 에서 그리스도가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자 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려 오시었다:

- A. 그분의 신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영원 안에서하나님에 의해 기름부음 받으시어 메시아-그리스도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셨다—단 9:26; 요 1:41.
- B. 기름부음 받으신 분으로 그분의 육신 되심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눅 2:11; 마 1:16; 16:16.
- C.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주로 이 땅 에서의 그분의 사역을 위해 시간 안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다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3:16-17; 눅 4:18-19; 히 1:9; 행 10:38.
- D.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목적을 의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고,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하나님의 위임인 주로 하늘에 속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셨다—고전 15:45 하; 행 2:36.

### II. 시편 2:4-6 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선언이다:

- A.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 지셨다— 6 절; 행 5:31; 계 1:5 상.
- B.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 세우셨음을 선포하셨다—히 12:18-22; 갈. 4:25-26:
  - 1. 시내산은 율법이 주어진 장소이다; 하늘들에 있는 시온산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천 안에서 계신 장소이다—계 14:1; 시 68:15-16; 엡 4:8.
  - 2. 신약의 믿는 이들은 시내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증을 위해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시온산으로 왔다—히 12:18-24.

### III. 시편 2:7-9 은 그분 자신을 선언한다:

- A. 7 절은 사도행전 13:33 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며 시편 2:7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 1. 바울은 시편 2:7 에서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 2. 바울은 오늘 이라는 단어가 주님의 부활의 날임을 적용했다—행 13:33:
    - a.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시편 2:7 의 적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분의 출생임을 의미한다.
    - b. 사람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부터 일으켜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 c.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일으키심은 그분의 아들이 되도록 그분을 낳으신 것이다—행 13:33.
- B.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꺼져지신후에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태어나셨다—시 2:7; 행 13:33; 롬 1:3-4; 8:29; 히 1:5-6:
  - 1. 부활에 의해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아들화 안으로 가져 오셨고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을 받으셨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맏아들로서 그분의 출생이다—롬 1:3-4; 8:29; 행 13:33:

- a. 그분의 육체 되심 전에 그리스도는 독생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요 1:18; 롬 8:3.
  - b. 육체 되심에 의해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과는 아무 상관 없으신 사람의 육신,요소를 입으셨다; 그분의 그 부분이 성결케 될 필요가 있으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높여질 필요가 있으셨다—요 1:14; 롬 1:3-4.
  - c. 부활에 의해 그분의 인성은 거룩하게 되었고 높여졌으며 변화 되었다; 따라서 부활에 의해 그분의 인성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포함하셨다—행 13:33; 롬 1:5.
  - d.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만아들로, 산출자로, 원형으로,본으로 사용하시어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 하신다—롬 8:29.
2. 같은 부활을 통하여 모든 그분의 믿는 이들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곧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 그분과 함께 태어났다—요 20:17; 벰전 1:3; 롬 8:29; 히 2:10.
- C. 그리스도에게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고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도록 주셨다—시 2:8; 72:8, 11; 계 11:15.
- D.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열국들을 다스리실 것이다—시 2:9; 계 2:26-27; 19:15.

### 메세지 3

그리스도, 하나님-사람이,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케 하며 그분의 선한 기뻐하심을 이루심

성경읽기: 시 15:1; 16:1-3, 5-8, 11:

- I. 시편 16 편은 하나님-사람인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케 하며 그분의 선한 기뻐하심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계시한다—마 3:17; 17:5; cf. 시 15:1:
- A.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신성한 속성들을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하신 인생을 사신 분이며,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분이시다; 그분은 율법에 대하여는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의 나그네이시며,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다— 1 절.
  - B.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그분의 많은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만 아들이신 하나님-사람 이신 그리스도 만이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케 하며 그분의 선한 기뻐하심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롬 8:29.
- II. 이 땅에서 하나님-사람의 생활로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신뢰하셨다—시 16:1:
- A. 이 땅에서 사셨던 주 예수님의 생활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이었다.
  - B. 그분의 생활은 신뢰의 생명 이셨다—벧전 2:23; 눅 23:46.
- III.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그분의 주로서 취하셨고 하나님을 넘어서는 어떤 선한 것도 없으셨다—시 16:2:
- A.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주로 인식하는 태도를 취하셨다—요 14:31.
  - B.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어떤 기쁨이나 누림이 없으셨다—마 11:25.
- IV. 그분의 인생 안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분의 기쁨을 가지셨다—요 14:31; 시 16:3:
- A. 시편 16:3 에서 성도들이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엡 1:22-23.
  - B.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뛰어난 사람들인 성도들 안에서 기뻐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의 몸을 조성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이었다—롬 12:4; 고전 12:12-13, 27:
    - 1. 그리스도의 눈에는 우리는 특별하며 뛰어난 사람들이다.
    -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뛰어나게 만드신다.
- V. 하나님이 주님의 유업과 잔의 분깃이시다—시 16:5:
- A. 시편 16:5 에서 기업은 소유를 의미하며 잔은 누림을 의미한다.
  - B.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기업과 잔의 분깃이시다; 그리스도의 인성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이며 누림이시다.
- VI. 주 예수님의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6 절:
- A.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운명과 모든 선택을 아버지께 두셨다—마 11:25-30.
  - B. 그리스도는 줄로 재어 준 아름다운 곳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아름다운 기업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소유로 감사히 여기셨다—시 2:8; 계 11:15; cf. 고후 10:7-18.
- VII. 여호와와의 겸손한 주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훈계 받으시고 그분의 속 부분들은 밤마다 교훈 받으셨다—시 16:7:
- A.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부인하시며 아버지를 그분의 훈계자로 아버지의 훈계를 받으셨다—사 50:4.

B.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은 하나님과 하나였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람으로서 혼계하실 때 그분의 속 부분들은 그분의 하나님을 접촉함을 통하여 교훈 받으셨다; 이것이 합당한 하나님-사람의 체험이다—cf. 빌 1:8.

VIII. 인생의 사십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호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그분 앞에 두셨다—시 16:8:

A. 그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우편에 계셨기 때문이었다.

B.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셨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항상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요 8:29.

IX. 주 예수님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된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인 -부활-을 그분께 알게 하셨음을 알았다—시 16:11 상:

A. 그분의 육체되심 안에서 그리스도는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지고 오셨다—요 1:14; 롬 8:3.

B.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은 인성을 신성 안으로 가지고 가셨다—1:3-4; 행 13:33.

X. “당신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 16:11 하:

A. 그리스도는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에 참여 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얻고 획득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인 하늘들로 승천 하셨음을 가리킨다—행 1:9-11; 2:36; 5:31; 빌 2:9-11.

B.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신다—시 16:11 하.

C.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그분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엡 1:20-23.

## 메세지 4

### 그리스도를 그분의 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왕으로 체험하며 누림

성경읽기: 시 46—48

#### I. 교회가 확장 되고 강해지고 건축 될 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국인 하나님의 성으로 된다—마 16:18-19:

- A. 집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분이 거처하시는 곳이 되고, 성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며 다스리시는 곳이다—엡 2:21-22, 19.
- B. 교회는 왕국인데 곧 그것은 집이 성을 위해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은 새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된다—계 21:2-3.
- C. 교회와 왕국은 그리스도의 증가 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증가인 반면에, 왕국은 행정 안에 그리스도의 증가이다—요 3:29 상, 30 상; 단 2:34-35.
- D.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는 확장되어 하나님의 성으로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1 Tim. 3:15; 계 5:9-10:
  - 1. 그리스도의 확장의 첫 번째 단계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이다—엡 2:21-22; 1 Tim. 3:15.
  - 2. 그리스도의 확장의 두 번째 단계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다—롬 14:17.
- E. 집은 주로 생명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은 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골 3:4; 1:18; 2:19:
  - 1.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지만 그분이 머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집으로는 갖지만 성으로는 갖지 못한다.
  - 2.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머리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교회는 집일뿐만 아니라 성이 된다.
  - 3. 성을 실제로 건축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도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엡 4:15-16.

#### II. 시편 46-48 은 하나님의 성으로서 교회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 성이 된다:

- A. 시편 46 은 성에서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을 계시한다:
  - 1. 성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 환난 중에 도움이 시다; 그는 언제나 도우신다— 1 절.
  - 2.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분의 다스림의 중심인 성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도다” — 4 절:
    - a. 계시록 22:1-2 상에서 말한 것 처럼, 이 강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흐르심을 의미한다.
    - b. 성 안에서 - 확장되고 강해지며 건축된 교회- 우리는 생수의 흐름을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 3. 움직일 수 없는 이 성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다— 시 46:5 상; 히 12:28:
    - a. 왕국은 하나님의 조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는다—시 46:5 상.
    - b. 왕국은 그리스도가 기반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마 16:18; 엡 2:20; 고전 3:11.
    - c. 왕국은 교회가 구조로서 흔들리지 않는다—마 16:18-19; 18:18-20; 롬 14:17.
    - d. 왕국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 구성원으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후 13:14.

- e. 왕국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표현 되는, 삼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흔들리지 않는다—계 21:10-11.
- B. 시편 47 에 성을 통하여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왕이 있다:
- 1. 이 성에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신다— 7-8 절.
  - 2. 시편 46 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림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신다; 시편 47 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성을 통해 온 땅 위의 왕이시다— 2 절.
  - 3. 교회가 성이 될 때 하나님은 민족들을 성을 통하여 복종케하며 왕이신 그리스도안에서 온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 4. 성으로서 교회는 온 땅을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왕권 아래로 이끌어 올 것이다—마 6:9-10; 계 11:15.
- C. 시편 48 편은 위대한 왕의 성에 관한것이다; 여기에 성의 절정의 체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
- 1. 우리가 성으로 건축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표현되고 하나님이 높이 찬양 받으실 것이다— 1 절.
  - 2. 교회가 확장되고 강해지고 건축 될 때 교회는 높여지고 그 높여짐이 시온 산이다— 2 절.
  - 3. 건축된 교회는 대적이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게 한다— 4-6 절.



## 메세지 5

###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높은 계시

성경읽기: 시 110

#### I.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오른쪽에 앉게 하셨다—시 110:1-2:

- A.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1 절:
1.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는 하나님의 오른쪽이다—cf. 뱀전 3:22.
  2.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올라가신 것은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분이 인격에 있어서 아버지시라는 것이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에 앉으셨다—히 1:3 하; 요 16:28.
  3.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의미한다—시 80:17; 골 1:17 상, 18 하; 계 22:1; 겔 1:22, 26; cf. 사 14:13; 3 요 9; 1 요 5:21.
  4.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인도자,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행 2:36; 5:31; 10:36.
  5.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발판이 필요하시다:
    - a.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의 적들을 복종케 하시고, 그분의 발판으로 만드시려고 분투하신다.
    - b.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적들을 복종케 하기 위한 것이다—롬 5:17, 21.
- B. 하나님은 그분이 돌아오실 때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으로부터 내보내실 것이다—시 110:2.

#### II.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심을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 하실 것이다—시 110:4; 히 5:6, 10:

- A. 그리스도는 권능과 권한을 가진 왕이실뿐만 아니라 또한 대 제사장이시다—히 2:17; 4:14; 6:20; 8:1; 9:11:
1. 그분의 승천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은 그분이 왕이심과 제사장이심을 둘 다 포함한다—7:1-2; Zech. 6:13.
  2. 왕으로서 그분은 땅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일들을 관리하시도록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대 제사장으로서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들을 돌보고 계신다—히 4:14-16; 7:25-26; 9:24; 롬 8:34; 계 1:12-13.
- B.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왕이신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사역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공급이 되게 하신다—히 7:1-2; 8:1-2; 창 14:18:
1. 땅에 속한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아론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시다—히 9:14, 26.
  2.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에게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5:6, 10) 인정 되었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제물을 드리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가 되심, 인간생활, 십자가에 못박히심, 부활하심을 통해 과정을거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사역하기위해서이다. 이것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 하시기 위한 (히 7:25)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떡과 잔으로 (마 26:26-28) 상징 된다.
- C. 대 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는 그분에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먹이신다—계 1:12-13; 2:1.

#### III. 그리스도, 주(아도나이) 이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기는 자들이 돌아오시는 때,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치실 것이고 온 땅에 있는 나라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시 110:5-6; 단 2:34-35, 44; 율 3:11-12; 계 17:14:

- A. 이것은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신 전사로서 모든 나라들을 이기시고, 왕들과 적들의 머리를 치시고,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가르킨다—시 2:9, 12; 단 2:44; 계 2:26-27.
- B. 그분은 그분의 군대로서, 그분의 모든 이기는 자들로 구성된, 그분의 신부와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대항해 싸우시고 이기실 것이다—19:11-21.

IV. 그리스도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실 것이고 승리로 그의 머리를 드실 것이다—시 110:7:

- A. 시냇물은 이기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끝까지 싸우시기 때문에 그는 물을 마실 필요가 있고, 이 물은 이기는 자들일 것이다.
- B.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를 드시는 것은 모든 적들을 이기신 그분에 승리와 성공의 예표이다.
- C. 적들에게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지만, 우리에게 그분은 마시는 분이시다.
- D. 시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 제사장, 전사, 승리자, 마시는 자, (앞으로 오시는 자)로 본다.

V. 우리는 주의 권능의 날에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속한 사역에 협력하여 헌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즐거이 드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3 절:

- A. 주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것,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1. 아름다움은 “멋진 장식”으로 번역 될 수 있다; 헌신의 아름다움은 멋진 장식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즐거이 드린다면 우리는 신성하고 하늘의 속한 멋진 장식으로 아름다워질 것이다.
  2. 교회가 타락 하였지만 수세기를 통하여 주님께 그들의 헌신의 아름다움과 빛남으로 자기 자신들을 즐거이 드리는 사람들의 노선이 있었다.
- B.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의 날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자발적으로 즐거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레 22:18; 신 12:6.
- C. 영적 전쟁을 하여 주님께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 오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이고 철저한 헌신을 해야 한다—시 110:3.

## 메세지 6

###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물을 주시므로 이 땅을 회복시키심

성경읽기: 시 72

- I.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는 그분의 소유로 주어진 이 땅을 차지하실 것이고, 온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실 것이다—시 24:1:**
  - A. 시편 24:7-10 은 승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오실 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B.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이기시고 또 오실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완결된 삼일 하나님이다— 7-10 절; 눅 21:27; 마 25:31:
    1. 여호와는 예수이다 (1:12 와 각주), 그리고 예수는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삼일 하나님인데 싸움에서 강하시고 이기신다—계 5:5.
    2. 그분은 그분의 왕국으로 이 땅을 차지 하기 위해 그분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 그분의 부활 안에서 다시 오시는 분이시다—단 2:34-35; 7:13-14; 율 3:11; 계 11:15; 19:13-14.
- II.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는 시편 72 장에 변영스럽고 변창하는 시대에(왕상 9—10) 통치하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로 (마 1:1; 22:42) 예표되었고, 이는 시편 제목과 첫 절에 나타나있다:**
  - A. 시편 72 장은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며 모든 왕들이 그분께 절하고 모든 나라가 그분을 섬기는 것을 계시한다— 8-11 절.
  - B. 시편 72 장은 주님이 온 땅을 회복하고, 차지하고, 통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영광스러운 그림이다— 17-19 절.
  - C. 솔로몬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통치는 복원의 시대인 천년왕국에서 있을 것이다—계 20:4, 6; 마 19:28.
- III. **그리스도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로 하실 것이며, 그것으로 평강이 도래할 것이다—시 72:1-4, 7:**
  - A.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 이실 것이다—89:14 상; 사 32:1, 17; 11:4-5; 61:11 하:
    1. 공의는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부, 행정, 규칙이기 때문이다—마 6:33; 시 89:14 상; 97:2 하.
    2. 정의는 판결이 있는 공의이다; 판결이 없으면 정의가 있을 가망이 없다.
    3. 정의는 한 사람의 공의에 따른 판결로부터 오고,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
    4.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순금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이 공의와 정의의 속성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계 21:18 하; 22:1; 사 32:1.
  - B. 평강은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표시이다;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결과, 이 땅은 평강으로 가득 찰 것이다— 16-17 절.
  - C. 그리스도가 돌아오시지 전에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그분의 다스림아래 평강이 통치하기 시작할 것이다—9:6-7; cf. 살전 5:3; 램 6:14.
- IV. **시편 72 장은 그분의 통치아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물 주심으로 회복하실 것을 계시한다— 6, 8 절:**
  - A.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6 절:

1. 그리스도는 싸우고 심판하여 이 땅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 주심으로 얻으신다.
  2. 그분이 돌아 오실때, 주님은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사하시는것만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주로 이 땅을 물 주는 비같이 오실 것이다.
  3. 그리스도는 이땅에 공휩하실 것이고, 이 황량한 땅을 물주고, 암울하고 공허한 사람들은 만족시키기는 소나기 비처럼 자애롭게 오실 것이다—6 절:
    - a. 오늘 때 마르고 황폐한 황야이고, 많은 악한것들이 가뭄과 메마름에서 발생한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불만스러운 것 때문에 자주 죄악적이다—요 4:14-18.
    - b. 주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행사하는것 뿐만이 아니라, 주로 목마른자들을 만족시키는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왕이 되실 것이다—계 22:17.
    - c. 그날에 모든 나라들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릴 것이고 그분의 지배아래 행복할 것이다; 모두가 그분의 생수로 만족될 것이다—사 35:6 하-7 상; 41:18; 43:19-20; 습 14:16-17.
- B.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시 72:8:
1. 주님의 왕국은 그분이 강으로 흐르심으로 땅끝까지 펼쳐질 것이다—단 2:44; 계 11:15; 습 3:18:
    - a. 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지배하실 것이며, 땅끝까지 강으로 흐르실 것이다; 흐름이 있는 곳에 그분의 다스림이 있을 것이다.
    - b. 주님의 다스림은 흐르는 강이신 그분 자신에 의해 하실 것이다; 그분은 다스림을 얻으시고 그분의 물 주심으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2.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올 강으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Ezek. 47:1-12; 율 3:18:
    - a. 그날에 이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일 것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에서 강이 흐를 것이다.
    - b. 창세기 2:10-14 에 있는 것 같이, 이 강은 네 방향으로 온 땅에 이를 것이다.